

음료 對ASEAN 수출 전망

☐ 대상국가

아세안

☐ 해당 품목의 산업 및 시장 현황/전망

- 국내 음료시장의 규모는 전년 대비 6.2% 성장한 3조 7,527억원에 달하며 탄산음료, 스포츠음료, 생수, 음용차 등이 주로 소비되는 반면 두유, 음용식초, 과일음료, 채소음료는 감소
- 탄산음료는 최고 판매 점유율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전년 대비 6.5% 성장한 9,522억원 판매
- 과일음료는 전년 대비 2.3% 판매액이 감소한 7,688억원 규모로 최근 이온·비타민 음료, 홍삼 등 건강 중시 건강 친화적 음료의 지속적인 출시에 따른 판매 감소 추세

[국내생산 현황 및 향후전망]

구 분	‘12	‘13
- 생산량 (톤)	3,222,635	3,406,523
- 수출량 (톤)	237,735.8	250,380.6
- 수출액(천불)	225,891	243,540
- 수출비중(%)	7.38%	7.35%

- 동남아시아 지역의 총인구 6억 명, GDP 2조 2000억 달러로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연간 7~8%대의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음
- 기후 특성상 수분 공급을 위한 스포츠음료 및 에너지 드링크의 선호가 높으며 웰빙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산음료의 성장세는 둔화 기조
- 설탕이 적고, 항산화 식품으로 인식되는 무가당 과일주스, 생수 및 RTD홍차제품 등 기능성 음료가 주목 받고 있음

☐ 해당 품목이 우리의 관심 품목인 이유

- 한국산 에너지 드링크가 캄보디아 에너지 드링크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아세안 전역에 한국 브랜드 긍정적 인식
- 한국 드라마, 음악 및 패션 등의 전파로 한국문화에 대한 소비자 관심 고조되어 한국 제품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
- 한국 식음료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하여 높이 평가
- 최근 6년간 한국 수입 식품 및 음료가 한인마트 외 일반 슈퍼체인에서도 상시 진열 판매 중이며 한국 브랜드들이 제품홍보대사로 대부분 한류스타를 활용하기에 제품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편